미술자료 수장고, 함박웃음 열다.

축복 속 꽃핀 한국미술정보센터 개관식

2010년 12월 22일 (수) 12:03:30 이은진 기자 press@sctoday.co.kr

[서울문화투데이=이은진 기자] 선각자의 창고, 미술자료의 수장고가 새롭게 단장 했다.

지난 21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한국미술정보센터(Korea Art Archive)의 기념전시 'The Records, Documents and Archives 기록, 자료 그리고 아카이브'展을 축하하고자 문화계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.

성우 배한성씨의 사회로 진행 된 이번 오픈 행사에는 정병국 국회문방위원장, 오광수 문화예술위원장,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, 허영환 전 성신여대교수, 박래경 한국큐레이터협회장, 조옥래 전 국립현대미술관사무국장,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, 김영원 홍대미대학장, 김춘옥 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등 이 참석해 축하했다.

▲ 김달진 소장

이 자리에서 정병국 위원장은 '김달진 선생이 평생 모았던 사료가 훼손되지 않고, 훌륭한 공간에서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' 며 운을 뗐다.

그는 50년대의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가 전시된 걸 봤는데, 그걸 보니 '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걸 느낀다고' 했다. 그러면서 '이런 자료가 얼마나 귀중한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기에 (김달진 선생이)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. 그런데 이제야 국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' 이라 했다.

그리고는 '5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다'며, '이제부터라도 문화적인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'고 하며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.

가난이 생활이던 시기를 지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김달진 선생은 짐을 싸고 또 풀고, 다시 싸는 걸 반복하며 이 자료들을 보관해 왔다. 이제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자료들은 시골 형님 집 컨테이너 박스에 쌓여있다.

더불어 '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영구히 보존, 관리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,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각오를 한다면 이뤄질 수 있으며,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확신을 한다' 고 했다. 끝으로 '문화예술인의 중심이 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.' 며 말을 마쳤다.

배한성씨는 정 의원의 말을 이어 받아 아이슈타인의 일화를 하나 들었다. 아이슈타인에게 죽음이 뭐냐고 묻자, 1초의 망설임도 없이 '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죽음' 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 했다.

오광수 위원장은 '자료는 1차적 작업이며, 이걸 바탕으로 연구 작업이 이루어 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로 승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' 며 '우리 미술 문화의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는 문화기지로서의 단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' 고 문화사회로 가는 2차적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.

안휘준 교수는 '집을 나설 때 까지 제가 축사를 하게 될 줄 몰랐다. 넥타이를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달라'고 운을 뗀뒤 '재경과 법쪽 의원들일수록 문화예술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비극' 이라고 말했다. 그는 조금 더 마음을 느긋하게 갖자며 몽유도원의 역사적 시기를 언급했다.

덧붙여 김달진 선생의 선각자적인 모습이 탁월하다며 그의 업적을 높였다. '김달진 관장이 혼자서 해도 집에서 바가지 긁으면 할 수 없다. 그래서 부인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' 라며 '가족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워해야 할 것' 이라고 당부했다.

김달진 연구소가 발전하는 데 큰 공을 들인 박내경 후원장은 '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난다. 옆에서 보고 느낀 것 뿐이다' 며 겸손하게 짧은 축사를 끝냈다.

▲ 허동화 자수박물관장이 건배사 제의를 하고 있다.

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꽃핀 한국미술정보센터(Korea Art Archive)는 미술계 미래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. 이번 개관식은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.

더불어 'The Records, Documents and Archives 기록, 자료 그리고 아카이브'展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미술정보센터 2층에서 열린다. 이제 더 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Korea Art Archive, 한국미술계의 주춧돌로써 변함없이 문화예술의 근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.